지상백고좌

조계종 가사 명장 무상 스님

“정진하는, 화두 드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무상 스님은… 1963년 동화사에서 월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196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1965년부터 범어사, 동화사를 비롯하여 제방선원을 돌면서 10안거를 성만했다. 40년을 조계종 가사 도편수로 가사 전승에 힘썼다. 2022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23년 법주사 율사로 법주사 보살계 산림과 교수아사리 율사로서 전국 불사를 증명하고 있다. 2024년 조계종 가사 명장으로 지정됐다.

오랜만에 법주사로 가는 길인데 비가 제법 내렸다. 법주사 입구의 정이품 소나무는 처연하게 내리는 비를 맞고 있다. 세조의 행차에 예를 다하느라 가지를 번쩍 들어 올린 소나무는 그 공로로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받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임금의 행차를 도운 소나무의 보시행을 떠올린다. 법주사의 오리 숲길은 언제 걸어도 힐링 되는 길이라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오늘은 한가하다.

조계종 가사 분야 명장으로 지정된 무상 스님의 인터뷰는 주석처인 보은 법주사에서 진행되었다. 스님의 거처는 작은 불상을 모신 불단이 있고, 몇 가지의 물품만이 있다. 출가 수행자의 검박한 삶을 보여준다.

“이 우중에 늙은이 인터뷰한다고 예까지 뭐하러 왔어요? 산중에 핀 향기있는 꽃은 숨어있어도 향기가 백리 천리를 가는데, 그런 분들을 취재해야지요.”

무상 스님께 ‘조계종 명장’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드렸다. 스님들의 가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가사 한 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노고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많지 않았다. 무상 스님은 40년 넘게 법의(法衣)라고 부르는 가사 만들기에 전념했고, 조계종의 가사를 전승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가사불사도 큰 원을 세워서 진행하는 불사이기에 옛말에 ‘가사는 바느질 세 뜸만 떠도 복이 있다’고 했다. 필자 역시 가사불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가사불사에 참여하면 공덕이 크다고 하여 경주 흥륜사의 신심있는 많은 불자들이 모여 도편수 스님의 지도 아래 한 달 정도 가사를 지었는데, 고요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라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무상 스님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천을 재단하는 사람은 재단만 하고, 다림질하는 사람은 다림질만 하고, 바느질 하는 사람은 바느질만 해야죠. 예전엔 많게는 백 명이 모여서 했는데, 모두 일념으로 해야 만이 온전한 가사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가사 만드는 그 시간만큼은 도(道)통하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무상 스님께 가사 도편수가 된 인연을 여쭈었다.

“가사 도편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가사 한 벌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법장스님 절에 놀러갔다가 배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법장 스님이 안거가 끝나면 나를 불러 가사 불사를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다니다 보니 도편수가 되었어요.”

요즈음은 수서에 있는 가사원에서 조계종단의 가사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전까지 무상 스님은 동안거, 하안거를 뺀 나머지 날에는 가사 만드는 일에 고스란히 시간을 바쳤다.

무상 스님은 동화사에서 월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사미계를 수계했다. 1965년에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계했다. 그 후 제방선원을 돌면서 안거수행했다.

이내 무상 스님의 출가 인연이 궁금했다. 무상 스님이 풀어놓은 출가 이야기는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했다.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속리산 법주사로 수학여행을 왔는데, 법주사 도량에서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 한 분을 만났어요. 가사를 수한 스님의 모습이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꼭 스님이 되어야 겠다’고 결심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하고 싶어 전화번호부에 나온 주소를 보고 큰 절의 스님들께 출가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어디에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가사장삼 수한 스님 모습에 반해 출가
1960년대 선원서 수행하며 가사 지어
“가사 수하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지만
사문 도리 못하면 지옥행인 무서운 옷”
40년 가사 제작 “道통했던 시간” 술회

13살의 소년이 가사에 반해 출가를 결심한 것도, 출가를 간절히 원해 여러 절에 전화를 한 것도 불가와 몇 생을 이어온 지중한 인연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 아닐까 싶다.

어린 마음에도 스님이 되려면 한문을 많이 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당에서 2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하였단다. 스님을 출가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인연은 〈금강경〉이다.

“누님 집에 가다가 어느 골목에서 누가 책을 읽는데 하도 듣기가 좋아 무슨 책인냐고 물었더니 〈금강경〉이라고 해요.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원적사 사중스님께 빌려와서 안 된다는 거요.”

〈금강경〉을 얻으려 원적사에 잠시 머물고 계시는 서암 스님을 찾아간 것이 출가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암 스님은 〈금강경 오가해〉를 건네주면서 서문의 한 구절을 읽어 보라 하였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둥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로는 옻칠과도 같다. 한 물건이 무슨 물건인고?’

무상 스님은 한문 풀이는 했어도 뜻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한 물건은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속가에서 원적사가 가까웠기에 소년은 〈금강경 오가해〉를 들고 서암 스님 문하에 드나들었다.

그러다 정월 초삼일에 서당 선생에게 세배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와 그 길로 몇날 며칠을 걸어서 대구 동화사로 갔다. 방사가 좁아서 행자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해도 소년은 막무가내로 출가하고 싶다고 버티었다. 그렇게 해서 동화사에서 국 끓이는 갱두 소임을 맡아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동화사의 한 사중스님이 왜 절에 왔느냐고 물었다.

“도 통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사중스님이 “도는 뭐 아무나 통하나” 하기에 어린 무상 스님이 “뭐 3년이면 도통하지 않겠습니까”하고 당돌하게 말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3년 갈 것 뭐 있어? 지금 당장 통해 버려라”는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무상 스님은 1960년대 중반, 선방에 방부를 들이며 수행하다가 가사불사에 동참했다. 당시는 가사 한 벌조차 쉬이 구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스님은 대전 심광사의 가사불사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그때 가사불사의 도편수는 1930~40년대 법주사 주지를 역임한 장석상 스님 손상좌인 법장 스님이었다. 법장 스님이 만든 가사를 최고로 여기던 시절이다.

가사와 발우는 출가한 스님들이 가장 먼저 받아 지니는 물건이며, 수행자와 일생을 함께 하는 도반과 같다. 가사는 출가자들에게 계율의 상징과 같으며, 외도들과 구분하는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무상 스님께서 말씀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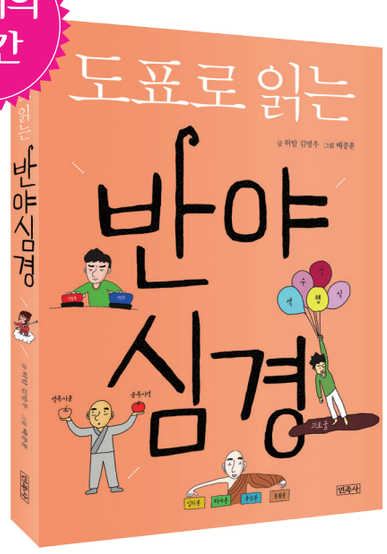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 외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는 누구 제자인지 물으면 무조건 ‘부처님 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도들과 구분하기 위해 화장터에 버려진 천을 주워 몸에 두른 것이 가사의 시작이 되었지요. 버려진 천으로 만든 것이니 얼룩도 있고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 그래서 분소의라고 해요.”

13면에 계속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